

늘리고 뒤덮고... 방송가는 지금 '편성 전쟁'



tvN 주말극 '사랑의 불시착'



SBS 월화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2'



TV조선 '미스터트롯'

연초부터 인기 드라마, 예능이 속속 탄생하는 가운데 방송가는 치열한 편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채널들이 드라마, 예능 가릴 것 없이 시청률을 사수하기 위해 '킬러 콘텐츠' 방송 시간을 늘리거나 변경하는 등 편성 경쟁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SBS와 tvN 사이 벌어지는 미묘한 신경전이다. SBS TV는 올해부터 월화드라마를 20분 빨리 편성해 밤 9시 40분부터 방송하고 방송 시간도 기존 60분에서 80분으로 늘렸다.

올해 월화극 첫 타자 '낭만닥터 김사부2'가 한석규의 열연으로 시청률 20%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직격탄을 맞은 건 밤 9시 30분부터 드라마를 방송해 온 JTBC와 tvN이다.

JTBC 월화드라마 '검사내전'은 4~5%대 시청률을 유지해오다가 '낭만닥터

시청률 사수 위해 '킬러 콘텐츠' 방송 시간 늘리고 변경 인기 드라마 1시간 훌쩍 넘겨 ... 경쟁사와 겹치기 편성

김사부2'가 방송을 시작한 뒤로부터 3%대로 주저앉았다. tvN 월화극 '블랙독'은 시청률이 눈에 띄게 하락한 것 같지만, 스토리가 몰입감이 있고 작품성도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4%대에서 정체돼 있다.

토요일은 상황이 정반대다. tvN 주말극 '사랑의 불시착'은 방송 시간을 1시간 이상 훌쩍 늘려 SBS TV 금토극 '스토브리그'와 겹치기 편성을 했다.

지난 11일 편성표 기준으로 '사랑의 불시착'은 밤 9시 10분부터 10시 45분까지 방송했다. 10시부터 방송하는 SBS TV '스토브리그'와 최소 30분 정도가 겹친다.

다행히 장르도, 시청층도 달라 두 드라마는 각자 나름대로 시청률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사랑의 불시착' 방송 시

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편성표 상으로 밤 9시 10분부터 방송을 시작해 10시 55분에 끝났다. 광고 시간을 빼고 봐도 약 90분에 달해 웬만한 영화 러닝타임과 맞먹을 정도다.

편성 경쟁은 드라마와 예능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목요일엔 TV조선 '미스터트롯'이 KBS 2TV 수목극 '99억의 여자'와 겹치기 편성을 하고 있다.

주 2회 방송하는 드라마는 월요일부터 화요일이, 수요일부터 목요일이 시청률이 높은 게 정상이지만, '99억의 여자'는 목요일 시청률이 수요일보다 2%포인트 씩이나 낮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목요일 밤 10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방송하는 '미스터트롯'에 시청률 파이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공회정 TV평론가는 19일 "방송사 간 경쟁의 물이 바뀌고 있다. 예전엔 지상파 들끼리 같은 시간대에 경쟁을 하다가 요즘 비지상파가 잘 되니 편성 방식이 많이 흔들렸다"며 "방송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니 살아남기 위해선 이런 편성 경쟁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상파 콘텐츠가 서브 케이블 채널에서 본방송 직후 바로 재방송되는 전략에도 주목하며 "격화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커버 범위를 넓히는 전략을 방송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 또한 "옛날처럼 방송 시간, 분량을 똑같이 가져가 경쟁했던 원칙이 깨지고 있다"며 "TV조선이 '미스터트롯' 하나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처럼 방송사가 처지에 맞게 편성 전략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연말뉴스

배우 박희순, 영화 '하얼빈'서 안중근 맡는다

순국 110주년 올해 개봉 목표

배우 박희순(50·사진)이 영화 '하얼빈'에서 안중근을 연기한다고 '안중근' 제작사 즐거움상상과 박희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18일 밝혔다.

영화 '하얼빈'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러일전쟁, 을사늑약, 군대해산 등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을 둘러싼 굵직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직전 일주일 동안의 긴박했던 이야기와 뒤편 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의 일을 그린다.

'부활의 노래' (1991), '동승' (2003), '나탈리' (2010) 등을 연출한 주경중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박희순은 "등장하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모두 살아서 꿈틀대는 시나리오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며 "안중근 의사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암울했던 시대를 온



몸으로 돌파해 나가는 한 사나이로, 그 뜨거운 이야기가 가슴 저리게 와닿았다"고 전했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김해숙이 연기한다.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 올해 개봉을 목표로 촬영을 앞두고 있다. 제작사는 "현실감과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안중근의 고향 황해도 해주 지역과 백두산 촬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뉴스

다비치 이해리, 2년9개월만에 솔로앨범

29일 '프롬 에이치' 발매

여성 듀오 다비치 이해리(사진)가 솔로 아티스트로 새 미니앨범을 낸다.

17일 소속사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해리는 오는 29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두 번째 미니앨범 '프롬 에이치' (from h)를 발매한다.

타이틀곡 '우는 법을 잊어버렸나요'를 비롯해 '지금', '사랑은 어디로 간 걸까', '나만 아픈 일' 등 6곡이 수록됐다.

'이 노래', '견에 차이' 등 이해리 자작곡 2곡도 담겼다. 이해리는 지난해 9월 싱글로 발표한 '나만 아픈 일'의 가사도 직접 썼다.

소속사는 "새 미니앨범 '프롬 에이치'는 이해리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솔로 아티스트로서 정체성



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해리가 솔로 앨범을 발표하기는 2017년 4월 발매된 미니 1집 '에이치' (h)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이해리는 앨범 발매 전날인 28일 청음회를 열고 신곡을 최초 공개한다.

이해리와 강민경이 소속된 다비치는 국내 최장수 여성 듀오로 2008년 데뷔와 동시에 1집 타이틀곡 '미워도 사랑하니까'를 히트시킨 뒤 '8282', '난영'이라고 말할지', '시간이 멈춰라' 등 다수 인기곡을 불렀다. /연말뉴스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공부가 머니? 스페셜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전국시대(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다큐 공감(재)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호기심대장 카토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나쁜사람(재)	00 정재영의 이수IN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거리의 만찬(재)	00 5 MBC 뉴스 25 언니네 살롱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육탐방의 문제아들	55 스트레이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0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40 낭만닥터 김사부 2
[10]	00 가요무대	10 개는 훌륭하다		
[11]	00 더 라이브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40 영화가 좋다(재)	10 언니네 살롱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UHD 특선 다크 라이브 오브 코알라	20 나이트 라인 50 앙코르 고향견문록 스페셜

EBS1

07:00 로보가 폴리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별일 없이 산다	19:00 스파이더맨
08:00 똥동맹 유치원	14:45 물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가 폴리(재)	20:30 아옹명명 귀여워(재)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원더볼즈	15:55 엄마 까투리(재)	<소근소근 이베리아 -인생은 축제처럼, 에스트레마두라>
09:40 아옹명명 귀여워2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퍼 피그(재)	<겨울엔 울주 1부 굽이굽이 이야기 길, 영남알프스>
10:30 한국기행(재)	16:40 똥동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1:50 EBS 다크프라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3:35 별일 없이 산다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마사와 곰(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0일(음 12월 26일 壬戌)

<p>36년생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48년생 결정을 때릴 때가 왔다. 60년생 유난히 마음을 끄는 바가 있을 것이니 꼭 접해보라. 72년생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이 한 동안 계속 되리라. 84년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될 것이니. 96년생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할 국량이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70, 76</p>	<p>42년생 징후가 보여도 내버려두면 정병 약화될 게 뻔하다. 54년생 도움을 받아야만 처리 될 수 있는 일이 생길지라. 66년생 여러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뜻밖의 해결책이 나온다. 78년생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90년생 인과응보, 사필귀정의 원리 앞에서 감쪽 놀라게 되리라. 02년생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16, 20</p>
<p>37년생 무난한 상태에서 대체적인 성과가 보인다. 49년생 무리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 61년생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73년생 합리적이야 설득력을 갖는다. 85년생 마무리 단계에서 정제할 수 있다. 97년생 예리한 관찰력으로 용의주도함이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29, 25</p>	<p>31년생 역할이 가장 되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3년생 다른 곳 쳐다보지 말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 55년생 결심이 의외로 미진하겠다. 67년생 반주해 받든다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79년생 확실하게 한계를 긋지 않으면 장래에 난처한 입장이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91년생 똑같은 현상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81, 42</p>
<p>38년생 한 마음이 되어야만 이루어지느니라. 50년생 파다한 징후만 감지하더라도 충분히 면맥할 수 있을 것이다. 62년생 순종의 해류에 항해하고는 있으나 해저의 암초도 잘 살펴보자. 74년생 실수가 없어야겠다. 86년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날이다. 98년생 알맹이는 없고 겉데기만 남아 있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66, 38</p>	<p>32년생 행평성 있는 시각이 현명한 판단을 낳으리라. 44년생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말라. 56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해야만 발전을 기약한다. 68년생 이익이 보이지 주저하지 말고 도모하는 것이 낫다. 80년생 함께하는 이와의 호흡이 중요한 때이다. 92년생 소통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배가되리라. 행운의 숫자 : 15, 51</p>
<p>39년생 내면의 실속뿐만 아니라 형식과 외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라. 51년생 대고는 없으나 공허할 뿐이다. 63년생 건실한 발상 속에서 북이 피어나는 법이다. 75년생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87년생 기막히게 좋은 운수이니 성사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99년생 충고에 따르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이니. 행운의 숫자 : 30, 01</p>	<p>33년생 외관은 보잘 것 없더라도 실속은 있느니라. 45년생 순탄한 하루지만 할 일은 태산 같이 쌓여 있다. 57년생 알면 서도 방지한다는 것은 손실을 자초한다. 69년생 순식간에 벌어지고야 말 것이니 눈 크게 뜨고 지켜 볼 일이다. 81년생 진중하다보면 점진적인 발전을 이룰 것임에 틀림없다. 93년생 할 만한 기회로 만들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23, 19</p>
<p>40년생 필수 불가결한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애를 쓰게 된다. 52년생 빈틈을 보이지 않음이 옳다. 64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세에 놓여 있도다. 76년생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안게 된다. 88년생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00년생 매끄러운 마무리가 이미지를 좌우 하겠다. 행운의 숫자 : 34, 31</p>	<p>34년생 너무 쉬워서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다. 46년생 자제히 들여다보면 미묘한 점이 보일 것이다. 58년생 애감하여 왔던 바가 현실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70년생 집착한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82년생 반작용 할 수도 있느니라. 94년생 범위가 넓어지거나 나온 위치로 조정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0, 10</p>
<p>41년생 중저대한 길목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까 우려된다. 53년생 구체적인 언급이 수반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 65년생 굳이 나설 필요까지는 없다. 77년생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만 실수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89년생 대적 마련을 위해 부심하겠다. 01년생 소망 했던 바를 이루리라. 행운의 숫자 : 26, 65</p>	<p>35년생 겁이 희다고 속까지 같으리라는 생각은 오판이다. 47년생 굳이 지름길을 찾지 말라. 59년생 발상이 막연하다면 제재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71년생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운이 따를 수 있느니라. 83년생 스티치 못 내버치는 상대의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라. 95년생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03, 36</p>